
碩士學位請求論文

福音書에 나타난 예수의 相談原理 考察

— 예수의 相談事例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康 玉 連

1997年 2月

福音書에 나타난 예수의 相談原理 考察

- 예수의 相談事例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提出者 康玉連

康玉連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高 明 奎

審査委員

許 鐵 洙

審査委員

朴 春 浩

<國文抄錄>

福音書에 나타난 예수의 相談原理 考察

- 예수의 相談事例를 中心으로 -

康 玉 連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許 鐵 洙

인간의 문제는 외형적이고 신체적인 것 외에 내면적이고 섬세한 정서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일반상담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다룬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모색하고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고찰하여 예수의 상담원리를 제시하고, 기존의 일반상담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문제들 중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 좌절의 4가지 문제영역에 걸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상담사례 가운데 16개의 사례를 발췌하여 분석한 것으로 예수의 인간관, 상담형태, 상담목표, 상담기법, 상담자의 자질을 문헌연구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상담원리를 요약하면,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의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하나

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내담자의 삶과 인격 전체가 변화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의 상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이었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관심, 사랑이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일반상담과 관련하여 볼 때, 이 두 상담은 그 기본전제와 접근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일반상담과 거의 일치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상담기법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예수의 상담은 우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죄인으로 이해하였다는 점과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는 일반상담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 상담현장에 적용될 때 그 효과가 크리라는 기대감이 있다.

目 次

國文抄錄	i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方法	3
II. 理論的 背景	5
1. 相談의 定義	5
2. 一般相談理論	7
1) 精神分析的 相談	7
2) 人間中心相談	9
3) 合理的 情緒的 相談	11
4) 行動的 相談	13
3. 基督相談理論	15
1) Adams의 勸勉的 相談	16
2) Crabb의 聖經的 相談	19
3) Collins의 基督相談	22
4) Clinebell의 成長相談	24
4. 一般相談理論과 基督相談理論의 關係性	28
III. 예수의 相談事例 分析	31
1. 스트레스	31
2. 외로움	39
3. 不安	47
4. 挫折	55

IV. 예수의 相談原理	68
1. 人間觀	68
2. 相談形態	71
3. 相談目標	72
4. 相談技法	74
5. 相談者의 資質	77
V. 要約 및 結論	80
1. 要約	80
2. 結論	81
參考文獻	84
英文抄錄	87



表 目 次

<표Ⅲ-1> 상담의 영역으로 분류한 도표	31
<표Ⅳ-1> 상담의 형태(Clinebell에 의한 분류)	71
<표Ⅳ-2> 문제영역별로 본 상담목표	72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인간의 마음은, 그가 겪은 사건들로 인해 깨어지고 상하게 된다. 또 이런 상처들은 현재의 삶에서 걱정스런 생각, 나쁜 생각, 쓰리고 상처 받은 감정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쳐, 결국 인간을 여러 모양의 죄와 우울증, 충동적인 행동, 가치 상실감과 열등의식, 이유없는 두려움과 염려 등으로 몰고 간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변화함에 따라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이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류지대사라고 하는 결혼이 젊은층에게 하나의 계약(contract)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녀들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 신뢰심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물질만능주의에 어릴 적부터 노출되어 건전한 성격 형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모든 곳에서 성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 버림으로써 무조건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져 가는 물질문명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고, 소외감과 허무감을 심어주어 깊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였으며, 곳곳마다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삶의 현실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 이른바 정체의식의 위기를 안겨다 주어 점차 도피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순간적이고 충동

적인 쾌락추구에 도취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극도의 긴장과 피곤 속에 지쳐 있으며 인간의 바른 가치관과 그 향방을 잃고 사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볼 때, 우리가 접하는 어떤 현장에서도 상담은 이제 보다 필수적인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인 상담을 현대 사회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상담은 전문가양성이라든가 시설적인 면, 그리고 상담에 대한 인식, 질적인 면 등등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 종결 직후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과연 내담자의 일생에 걸쳐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 지 의문이다. 이것은 상담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세계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들이 상담의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기존의 일반상담이론들이 인간의 문제를 내면세계보다는 외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는 외형적이고 신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내면적이며 섬세하고 미묘한 정서적인 문제와, 인간의 지혜와 이론,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은 비록 그것이 왜곡되어 밖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자신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표현된 노력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문제 인물로 부각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행동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게 지적, 정서적, 혹은 의지적으로 불균형한 성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전영복, 1994), 따라서 내담자에게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하려면 반드시 인격의 저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루어야 한다.

상담자 예수가 어떤 내담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누가복음7:36-50, 누가복음17:11-19, 요한복음5:1-8)고 한 것은, 내담자의 고통의 원인이 신체적인 것 이외에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말로 인간 행동의 근원이며, 그만큼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일반상담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너무 소홀히 다룬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 일반상담의 효과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본 연구자는 예수의 상담사례를 고찰·분석함으로써 기존 일반상담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예수는 공생애 기간 동안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정적,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상담하였다. 그가 접한 상담사례는 성경에 수십건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본 연구자는 급속한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이 현대인들에게 가져다 준 정신적인 문제들 중 스트레스, 소외·외로움, 불안, 좌절의 4가지 문제 유형에 걸쳐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상담자 예수의

인간관, 상담형태, 상담목표, 기법 및 상담자의 자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취하며 먼저 일반상담이론과 기독교상담이론을 검토하고, 4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예수의 상담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담은 어떠한 것인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기독교상담이론에 주로 많은 영향을 준 일반상담이론과 기독교상담이론들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相談의 定義

실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들마다 문제를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상담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다.

상담이란 용어는 영어의 counseling으로 이것은 라틴어의 consulere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고려하다(to consider), 반성하다(to reflect), 숙고하다(to deliberate), 조언을 받다(to take counsel), 문의하다(to consult), 조언을 구하다(to ask counsel of)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전영복, 1994).

또 상담에 대한 성경의 단어는 '노우베테오'(noutbeteō)라는 것으로 생각에 담아 둔다는 말이고, 또 '보올레'(boule)라고 하여 '의지'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도 쓰인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담이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생각에 담아 둘 진리를 찾아 주고, 그들의 의지가 진리를 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Mike & Doug, 1995).

Adams(1987)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성령의 증생케 하

시는 사역과 성화시키시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Crabb(1992)은 상담이란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 하였다.

Collins(1984)에 의하면 상담은 한 사람(상담자)이 다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내담자)을 충고하거나 격려하고 보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 주는 두 사람 또는 둘 이상 사이의 관계이다.

Clinebell(1983)은 상담은 문제를 성장 지향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회복적 기능, 즉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상은(1992)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담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맺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문제해결과 전인적인 성장에 목표를 두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김준출(1991)은 상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음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이 사역”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고 말한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러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인간은 자유를 얻어 영적으로 조화된 삶을 이루게 된다.

본 연구자는 상담을 “내담자의 현재 불균형한 문제를 통하여 내담자에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과 자기통찰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진리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여 책임있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록 돕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책임있고 성숙한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자신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이해와 더불어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인 것이다.

이러한 상담의 정의에 의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여 분석함으로써 예수의 상담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2. 一般相談理論

현대 상담학 분야에는 다양한 상담이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독교 상담학에 큰 영향을 준 정신분석적 상담, 인간중심상담, 합리적·정서적 상담, 행동주의 상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精神分析的 相談

정신분석이론은 현대상담과 심리치료의 초석이요 기초가 된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여러 수백가지 상담치료 가운데 대부분은 정신분석체제로부터 기본형성과 기술 또는 추진력이 파생되었다.

Freud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개인을, 현재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자로서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생활경험에 의하여, 그것도 출생에서부터 5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 속에 잠재

해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Freud는 인간의 성격이 원욕(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id는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자 본능이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쾌락원칙”에 따라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으로 작용한다. 욕망실현을 위한 사고능력은 없으며, 단지 욕망 충족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Ego는 id의 본능과 외부 현실세계를 중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현실원칙”의 지배를 받아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환경에 적응한다. Superego는 쾌락보다 완전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보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이장호, 1986). 여기에는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 이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도덕에 위배되는 id의 충동을 억제하며 ego의 현실적 목표를 도덕적이며 이상적인 목표로 유도하려고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3가지 체계는 통일되고 조화를 이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협동하여 작용함으로써 사람은 환경과 능률적이며 만족할 만한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 3가지 체계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부적응으로 되어 있다고 부르며 능률도 줄어든다.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은 유아기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것도 출생 후 5년 사이에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그 후에는 마무리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성적 에너지(libido)가 출생 시에 나타나며 이것은 5가지 심리 성욕단계-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거쳐서 발달한다.

정신분석상담은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각성과 통찰을 도와서 건설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잘 적응하는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이형득, 1993).

상담의 기본적인 기술로는 자유연상, 해석, 꿈의 분석, 저항의 해석, 전이의 해석 등이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은 그가 하는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자기의 행동 태도 그리고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인간관은 인간의 참모습을 상실한 것으로 인간을 다만 id, ego, superego라는 인적인 힘으로 본능, 유전, 환경 등의 산물로만 여긴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이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人間中心相談

인간중심상담은 1930~194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Carl R. Rogers (1902~1987)의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발전된 상담의 한 접근방법으로, 만약 카운슬러의 태도에서 어떤 조건이 나타난다면, 그 때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Rogers는 인간 유기체가 분화, 자기 책임감, 협동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천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 본다(이형득, 1992). 그에게 있어서 유기체란 그 개인의 사상, 행동 및 신체적 존재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개인이며, 그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적 장 또는 경험적 장으로부터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아개념은 각성

될 수 있는 자아지각들의 조직된 틀로서 집합체가 아니라 통합된 형태(gestalt)이며, 학습을 거듭함으로써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부분적인 변화에 의해 전체가 변화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아개념과 유기체 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그 결과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자아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일치한 인간일수록 건강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도 개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 두고 있다. 상담과정에서 그는 상담의 과정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내담자의 책임과 주체성을 강조하며, 수용적인 상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상담자에 의한 평가나 해석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신뢰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억압이나 왜곡 등의 방어기제를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자유로이 자신을 노출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탐색하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담기술로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호작용에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리고 진실성의 태도를 표현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상담자의 기술보다는 태도, 그리고 “지금-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 공헌점이 있지만, 진단을 중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담자에게 의존경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상담자가 가치 중립적이어서 내담자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제지·권면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보인다. 또한 Rogers의 사상은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원칙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

여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구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기독교사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3) 合理的 情緒的 相談

상담이론에 있어 인간의 신념이나 생각 등 인지적인 면들이 정서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접근이 Albert Ellis에 의해 창시된 합리적 정서적 상담(rational-emotive therapy : RET)이다(이형득, 1992). 이 이론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나 그 결과(행동)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실 그 자체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면 바람직한 정서와 행동을 경험하게 되지만, 비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와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정서적 혼란과 관계되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대치시키거나 최소화시켜서 내담자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융통성있는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T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존재로 본다(이형득, 1992). 즉, 인간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여건을 만들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생득적, 문화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를 평가하며, 자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인간은 성장과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본능적 경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본다.

성격이론은 이상 성격의 발달에 관심이 있으며, 이상 성격은 타고난 경향으로서 생득적인 면, 사회적인 면 그리고 심리적인 면 즉 ABCDE이론에 기초한다고 본다. 특히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체계가 자신을 재교화시켜서 자기파괴적이 되도록 한다고 본다(이상은, 1992). 즉,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사회적 조건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또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타고난 경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치의 많은 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충족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이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ABCDE이론은 인간에 있어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정서적 결과(emotional consequences:C)는 어떤 사태의 발생(activating events or experiences:A) 그 자체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그 사태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신념체계(belief systems:B), 특히 비합리적인 신념체계(irrational belief systems:iB)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자신의 불행과 정서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곁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과 관련된 그의 자기파괴적 생각을 줄여서 그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거나 그의 행동결과에 대해 자기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내담자의 정서나 행동, 특히 부적절한 정서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념, 또는 가치체계를 재검토하도록 도

움으로써 성격이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이형득, 1992).

상담과정에서는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내담자가 어릴 때 획득한 신념과 정서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내담자의 현재 능력을 강조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많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거나 버리도록 도와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생관을 갖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전환, 요구충족, 마술, 요구포기와 같은 기법이 있고, 인지적, 정서적 환기적, 행동적 기술이 활용된다.

이 RET는 인간행동에 있어 인간의 생각, 신념을 경험이나 느낌만큼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과 통찰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한 점,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도 자신을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담자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학 분야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 생각에 대해 철저한 분석에 의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비합리적 생각을 깨닫고 또 말씀에 의해서만 인간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독교적 이해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4) 行動的 相談

행동적 상담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내적 동기, 욕구, 충동과 같은 개념을 거부하고 겉으로 표현된 행

동 그 자체를 중요시 하는 데서 시작된다. 행동적 상담은 다양한 학습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부적응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고 적응행동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화된 학습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적 상담은 치료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대상 및 방법적 절차 때문에 절차 때문에 행동치료 혹은 행동수정이라고도 한다.

행동주의에 있어서 비교적 초기에는 인간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이며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결정론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Bandura(1974)에 이르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의지적 선택을 하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행동주의 상담은 성격의 구조나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특징들 보다는 수정이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둔다.

Skinner는 강화, 벌, 소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부적응 행동을 약화시키고 적응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목표는 내담자에 의해 수행되어질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되어져야 하고 바라는 행동수준, 행동이 일어날 조건을 진술해야 한다. 상담기술은 Pavlov의 고전적 조건 형성, Wolpe의 상호제지, Skinner의 조작적 조건 형성,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행동조형, 심적포화, 상반행동의 강화, 프리막 원리, 대용경제체제, 행동계약, 체계적 둔감법 등이 있다(이형득, 1992).

이 행동적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합의에 따라 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기술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데 그 장점이 있지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경시하고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대한 내력을 경시하고 있으며 자아 실현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또한 근거하고 있는 학습이론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을 동물과 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행동주의상담에서 인간이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의 커다랗고 공허한 무(Zero)의 상태에 불과하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동물인 것은 사실이나 신적으로 창조된 독특성,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관계, 그리고 제한된 문명 때문에 행동주의이론의 전제에 만족한다거나 한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일반상담이론들은 초기 기독교상담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제공하였다.

3. 基督相談理論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이론을 목회에 도입함으로써 정립되었다. 교회에 실제로 기독교상담학의 이론을 적용하고 정립하기는 보이슨(Anton T. Boisen)에 의해서이다. 그는 어떤 형태의 종교적 경험과 어떤 형태의 정신적 착란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이론을 제창했던 사람으로, 인간 경험의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연구는 결국 신학적인 문제에 낙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금자, 1991). 기독교상담은 분석과학이론이나, 임상실험의 이론에 영향을 받고 그 방법론에 급급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Adams가 Freud의 이론을 분석 비판함으로써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기독교상담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기독교상담이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Adams에 의해 크게 강조된 권면적 상담, Crabb의 성경적 상담, Collins의 기독교상담, 그

리고 Rogers의 인간중심상담에서 강조된 이론을 목회적으로 수용한 Clinebell의 성장상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론들은 모두 일반상담에서 종합된 상담방법을 목회적으로 적용·변용되고 여기에 다시 기독교적 특징이 첨가되어 발전된 상담이다.

1) Adams의 勸勉的 相談

Adams(1987)는 비기독교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론을 배격하고 성경적 방법을 통한 상담이론을 개발하여 권면적 상담이라 부른다. 즉 이 방법은 지시적 상담과 인간중심의 상담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택하고 약점들을 제거하며 이것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상담하는 것이다(김준출, 1991).

그의 상담이론에서 주요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 형태의 문제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을 상담해야 한다는 원리 아래서 성경이 그 문제들에 관해 말씀한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타락한 인간 본성의 부패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전제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적 존재이다. 또한 새로운 것을 향하여 건설적으로 창조해 내는 창조력을 지닌 존재이며, 생의 목적과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타락하였고 이 결과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

제와 그 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Adams는 자연인이라 하였는데,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Adams의 인간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해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dams가 말하는 “권면”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첫번째 요소는 먼저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조건을 내담자가 갖추어야 하며, 두번째 요소는 문제를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권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권면이란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말이 첨가되어야 한다. 세번째 요소는 권면적 활동의 배후에는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면은 사랑과 깊은 관심이라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며, 내담자가 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고 징계하는 것이라고 Adams는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권면적인 목적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디모데후서 3:16) 권면적인 상담은 성경적인 상담이 되어야 한다. 즉, 권면적 상담이란 성경의 원리와 실천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다. 결국, Adams는 성경적인 상담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성경적 상담이란 성경에서 그 동기를 찾으며, 성경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성경의 목표를 그 뼈

대로 삼아, 성경의 모델로 주어지고 명령된 원리와 실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상담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Adams는 철저히 성경을 통한 권면을 상담의 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상담자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자라야 하며(골로새서 3:16), 그리스도처럼 선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열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진리를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자인 것이다.

권면적 상담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인격 형성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영혼구원과 성숙한 인격과 성화로 규정할 수 있다.

권면적 상담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담 과정에서 자기노출이 심리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권면적 상담자들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한다.

Adams의 상담과정은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경청의 단계이다. 내담자의 고백에 대하여 관심있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이해의 단계이다. 이해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다. 깊은 관심과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내담자 이해는 문제 이해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분석의 단계이다. 상담자는 이 단계에서 목적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분석의 기준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 그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넷째, 권면의 단계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으로 권면하며 성경을 통하여 소망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결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조된다.

Adams의 권면적 상담이론은 목회자들에게 상담자로서 성경의 입장에 바로 서게 하고 이제까지 상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 주었고 현대 상담학과 성서신학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청, 용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담자의 입장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너무 엄격하고,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불가능하고, 일반 상담이론을 모두 비성경적이라고 배척하므로 독단론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Crabb의 聖經的 相談

Crabb(1992)은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고 성경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성경적으로 상담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역동성과 치료학상의 처치 기술적인 연마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rabb에 있어서 올바른 상담의 단계는 먼저 “올바르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그 후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올바르게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부정적인 느낌이 항상 잘못된 원인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다. 즉, 인간은 사랑이 넘치는 관계와 의미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열렬히 갈망한다. 움직임이 있는 단순한 기계나 생각하는 컴퓨터, 혹은 감각을 가진 유기체가 아니라 인격의 만족을 깊이 갈망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갈 일련의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고 이러한 사고과정을 거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결론들에 이른다. 자신이 추구할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특정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간은 또한 의존적 존재이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사실을 피하려 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rabb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중요성(significance)과 안전(security)의 욕구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성은 자긍심, 자존감으로 또 안전은 용납, 수용 등으로 통용될 수 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인간의 속성이었으나, 타락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되었다. 그러나 Crabb은 이 중요성과 안전의 욕구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 욕구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담은 내담자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잘못된 기초를 고쳐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인격

적 가치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이기심에서 기인하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에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상담자는 모든 내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 용납을 받아 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행복의 추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의 과정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가식을 벗겨버리고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진실에 직면시킴으로써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으로 Crabb은 7단계의 상담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 : 문제 감정을 확인하라

제2단계 : 문제 행동을 확인하라

제3단계 : 문제 사고를 확인하라

제4단계 : 성경적 사고를 명백히 하라

제5단계 : 안전한 행동의 결단을 하게 하라

제6단계 : 성경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라

제7단계 : 영적으로 조절된 감정들을 확인하라

또한 Crabb은 상담의 3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단계 : 문제의 감정들 --- 격려 --- 성경적 감정들

제2단계 : 문제의 행동들 --- 권고 --- 성경적 행동들

제3단계 : 문제의 사고들 --- 교화 --- 성경적 사고

즉, 문제의 감정들은 격려를 통하여 성경적 감정으로 바꾸어 주고,

문제행동들은 권고를 통해 성경적 행동으로, 문제의 사고는 교화(敎化)의 상담을 통하여 성경적 사고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다.

Crabb의 상담이론은 Adams처럼 성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심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이론으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올바른 교회론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해를 통해서 지체 생활의 의무로서 서로 돌보고 격려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성경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놓고 그 권위 아래서 심리학을 도구로서 허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상담방법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상담방법과 진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3) Collins의 基督相談

Collins(1984)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신다”는 전제 하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심리학자이다. Adams의 지시적인 권면적 상담에 반하여 그는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면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상담의 목표가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행동 태도 또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감정표현을 도와주는 것, 곤고할 때 지원해 주는 것, 통찰력을 심어주는 것, 결정을 내릴 때 인

도해주는 것, 책임을 가르치는 것, 영적 성장을 자극하는 것, 내담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내적 자원을 도와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특히 그는 상담을 심리치료와 구별하여 인격을 현저하게 변화시키거나 변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무대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고,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태도에 유의해야 하며, 상담자는 요령과 기술에 익숙해야 한다. 상담자는 상담기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담자의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기법들은 상담자가 “선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는데 그 인격적인 특성들은 온정, 감수성, 이해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 등에 있다. 상담할 때 일방적인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이성과의 가까운 접촉,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 등은 상담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이해를 위해 상담을 접촉, 소개(개시), 문제 서술, 해결, 종결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계는 한 차례의 면담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몇 차례의 면담을 통해 연결될 수도 있다.

Collins는 상담의 유형을, 지원적 상담, 대결적 상담, 교육적 상담, 예방적 상담, 영적 상담, 의뢰 상담, 심층 상담, 비공식적 상담, 집단 상담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내담자에 따라서 이 접근방법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의 상담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장래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목사와 평신도들에게 상담훈련을 시키며, 기독교 상담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예방적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기술을 익혀 상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Collins의 상담이론은 대단히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며 대중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면도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4) Clinebell의 成長相談

미국의 목회 상담가이며 신학자인 Clinebell(1983)은 Rogers와 Hiltner의 학문적 유산을 이어받아 그들이 강조한 이론을 목회적으로 수용하여 성장상담을 제시하였다. 상담의 구조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일대일의 면접 상담을 중요시하면서도, 목회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공식 상담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그의 상담 접근 방법은 Rogers의 방법에 따른 비지시적인 접근의 일방적인 활용보다도 목회자의 특수한 이미지를 감안하여 상담의 종류와 내담자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상담은 과거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처방중심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적 결단을 중요시하는 목회 상담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성장상담이란 “듣는 과정에의 인간 잠재력

접근법으로 그 목표는 인생의 각 단계에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성장과 사회의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Clinebell(1983)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장욕구는 자연현상이며 그들의 풍부하고 참된 인간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성장과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건만 순화되면 최대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되어감의 과정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가는 데 장애물만 제거해 주면 그 완전성을 실현한다고 본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생명의 충만한 상태를 획득하는 것인데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성(spirituality)을 중심으로 한 '전인격'에 목회상담의 목표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인간성을 모든 제약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도와주어 풍성한 삶, 즉 전인적인 삶과 전인적인 건강, 즉 진리로 인해 육체와 마음,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및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Clinebell은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여섯 가지 차원을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차원은 내적 성장인 마음을 활기차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은 사고와 느낌, 경험과 소신, 그리고 창조

적인 가능성을 포함한 전인성의 개발을 의미한다.

두번째 차원은 몸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서의 내적 성장으로, 이것은 우리의 몸을 좀더 풍요하게 체험하고, 건강을 즐기며, 몸을 유효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차원으로서의 성장은 사람들을 도와서 각자의 인간관계를 바로 잡고 갱신하며 또 그 관계를 풍요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 모두에 참여하는 관계이다.

네번째 차원은 생태계와 관계된 성장이다. 대자연과의 성장적인 관계가 발전되고 확대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다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섯번째 차원은 사회제도들과 관계된 성장으로 조직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해방과 치유, 그리고 성장을 다루는 것이다.

성장의 마지막 차원인 영성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의미있게 하는 것으로서 다른 다섯 가지 차원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성장상담은 이 영적 상담을 우선하는 전인적인 인간이해를 가지며 이와 같은 이해 위에 희망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각 단계의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각 단계는 그 안에 새로운 문제들, 한계들, 좌절과 상실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 단계의 문제들에 따라 상담의 유형을 정하게 되며 성장상담은 그 특수한 삶의 단계 안에 있는 새로운 힘들과 가능성을 개발함으로써 그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는 Erickson의 성장단계를 14단계로 확장시켜서 성장상담의 단계들을 제시하였다.

성장상담 기회의 대다수는 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위기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서 대처하도록 돕는데 있기 때문에 감정과 태도, 행동의 건설적인 면을 확대시켜 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상담은 하나의 관계의 형성과 그 관계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되는데 최초 면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이 성장상담의 기본적인 요소로 내담자에게 감정투자를 요하는 적극적인 경청이며 상담자 자신의 감정도 상대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성장상담에서는 성경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경의 지혜가 성장상담 관계의 과정과 목표들을 분별있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 위기에 있는 내담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또한 진단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영적인 병을 고치고, 병의 원인이 되는 신념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과 성장-양육 차원의 열쇠가 되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성경이 사용된다.

Clinebell은 상담기술의 실천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내담자의 요구에 대하여, 내담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상담자와 도움을 주는 관계에는 인간적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술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한 끊임없는 도전이므로 지속적인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상담자는 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상담이론과 방법을 검토한 후에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치유와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깊이

인식하고,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

Clinebell의 성장상담은 지금까지의 다른 상담에 비해 각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각 단계마다 잠재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상담에 대한 기본 입장과 원리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일반상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기독교상담은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점과 상담의 전개과정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성경의 관점 등에서 일반상담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로서 일반상담이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Narramore(1984)는 기독교상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할 수 있다.

둘째, 인생의 의미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절대적 지침서로 활용한다.

넷째, 성경 안에서 인간의 본질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궁극적 해결 등에 관한 해답을 얻게 된다.

다섯째, 죄와 죄책감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대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다.

4. 一般相談理論과 基督相談理論의 關係性

앞에서 개괄한 일반상담이론과 기독교상담이론을 볼 때,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두 상담은 인간을 돕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 즉 '인격' 그 자체를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을 속박하는 고통과 질병을 적(敵)으로 삼고 그를 치료한다는 점과,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도움으로써 인격의 성장, 해방, 회복 및 구원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국배, 1989). 이 둘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며 인간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담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rapport형성이나 상담자의 태도,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성경은 인간에게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진리를 알라'(요한복음 17:3), '따르라'(누가복음 5:10),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1-2)이다. 이것을 상담용어로 하면 Knowing, Being, Doing이다. Knowing에 상담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로 정신분석적 상담이고, Doing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 Being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담은 인간중심상담과 합리적·정서적상담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이 3가지를 동시에 단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 존재가 변화하여(Being),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Knowing), 계명을 지키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Doing) 사람으로의 성숙을 지향한다.

또한 기독교상담은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반면에 일반상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으로 이해한다.

일반상담은 대체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담의 목표도 인간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행복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의 목표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행복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 물론 기독교상담에도 일반상담과 비슷한 목적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독교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보다 풍성한 예배의 경험과 이웃에 대한 효과적인 봉사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전영복, 1994). 이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문제되는 환경 속에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대처하고 또 일관성있게 순종할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성장을 말한다.

일반상담은 상담자의 자질 이외에 상담기술이나 기법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전개해 나가지만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사역을 의존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 즉 상담자의 자질이나 기술, 기법보다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성령의 도움을 위해 겸손하고 순종의 자세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Ⅲ. 예수의 相談事例 分析

이상은(1992)은 예수의 상담 사례 60건을 분석하여 그 영역을 생활지도, 상담 및 심리치료 차원으로 <표Ⅲ-1>과 같이 분류, 예수의 상담에는 행동태도의 변화와 사고, 심리적 갈등을 위한 영역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표Ⅲ-1> 상담의 영역으로 분류한 도표

내 용	사 례수	비 율(%)
행동, 태도의 변화를 위한 영역	22회	36.7
사고, 심리적 갈등을 위한 영역	21회	35
정보, 조언, 의사결정의 생활지도 영역	13회	21.6
정신 장애(성격 장애)의 영역	4회	6.7
합 계	60회	100

이것은 예수를 찾은 내담자들도 이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그리고 불안, 좌절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 대하여 상담자로서의 예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목표를 두고, 또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지 16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이 환경이나 사건으로부터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

으로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받아서 생기는 반응을 의미한다(김계현, 1995).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남과의 경쟁에서 보다 나은 위치와 성공을 이루려는 중압감에 기인할 뿐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각각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무력감이 그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Underwood, 1996).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압감, 스트레스는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룰 4가지 사례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보다 나은 성공을 이루려는 중압감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마르다도 하찮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해서 형제 간에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또한 탐욕으로 인해 항상 공허감을 느끼는 청년의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 예수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해주고 권면함으로써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 1) “누가 큰 자인가” (마태복음18:1-4, 마가복음9:33-37, 누가복음 9:46-48)

내담자 :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상담자 :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몇몇 제자들이 변화산상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였다. 나머지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았다. 예수는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을 하였는데 제자들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기만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냐는 논쟁이 일어났다.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남보다 더 인정받고 위대해지고 싶어 하는 성공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내담자들은 침묵을 유지했다. 내담자 자신들은 그 문제를 하찮고 유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이 하찮고 유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소 그들의 주요 관심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에 대해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며,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문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다룬다.

상담자는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를 올바른 사고로 바꾸어서 내담자 자신의 정신적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내담자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 즉 진정으로 큰 자와 참다운 안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인간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내담자의 부적절한 정서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념 또는 가치체계를 검토하도록 도움으로써 성격이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정서적 상담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실물교훈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실물교훈은 가르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해주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

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합리적 정서적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느낌, 생각, 행동에 대해 시범을 보이게 하고,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이러한 모델링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될 때 효과적이라고 한다(이형득, 1992). 상담자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아 자기 곁에 세우고 어린 아이에게 내포되어 있는 소박성, 겸손 등을 가르치는 동시에 인간은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귀한 존재임을 강력히 주지시킨다.

2) 젊은 부자관원 (마태복음19:16-22, 마가복음10:17-31, 누가복음18:18-23)

내담자 : (달려와서 끊어앉아)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상담자 :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담자 :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상담자 :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담자 :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상담자 : (내담자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내담자 :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감)

예수가 길에 나갔을 때 한 젊은 부자관원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영생에 관하여 물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청년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는 지각이 있고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는 의심과 혼동,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여 있다. 부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으며, 명예도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부족한 느낌뿐이다. 이 내담자는 돈과 명성이 자기의 인격적 욕구를 채워 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절박한 심적 고통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도움을 구하기에 강한 동기가 되었다. 상담자를 만나는 순간 상담자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는 내담자의 행위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보인다. 내담자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자신을 단도직입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상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상담 초기부터 자기 문제를 노출시키면 상담 목표의 달성은 훨씬 용이해진다. 이에 대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담의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내담자의 문제가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줌으로써, 내담자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 안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상담의 목표를 두었다.

상담자는 그에게 그 의심과 혼동의 문제를 자유롭게 털어놓도록 하

고, 내담자의 탐욕적인 생활, 즉 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직면시키면서, 그의 생활의 영적인 필요를 지적·권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으며, 탐욕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내담자가 옛 습관 결성이 너무 완고하여 아무리 상담자가 권고하여도 상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높은 자리 차지 (마태복음20:20-28, 마가복음10:35-45)

내담자 :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상담자 :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담자 :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상담자 :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담자 : 할 수 있나이다

상담자 :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열 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삼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였다. 이런 마당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현세적 영달을 위한 야심을 드러낸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상담자를 “조력자”가 아닌 “해결사”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보인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를 통찰하고 자신을 각성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상담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담자의 필요를 듣고 있다. 내담자의 요청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나무라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해 주면서 수용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또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원만스럽지 못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역설적 교훈을 통해 내담자를 각성시킨다. 즉,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담자들에게 종이 되라고 함으로써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역설적 상담의 역설적 지시와 상통하는 이 기법은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문제행동을 계속해서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혼란의 상태 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하여 그 결과로 지금까지 해 온 증상적 행동 형태에서 탈퇴하게 하는 것이다(이형득, 1992).

4)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10:38-42)

내담자 :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상담자 :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를 집으로 초대하고는 대접을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무척 바쁘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거들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

준비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여, 불만에 가득찬 내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담자에게 털어놓았다. 상담에 대한 동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권면적인 상담에서는 “마리아야, 가서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언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후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고 지시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노여움을 인정하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너는 동생이 진지하게 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구나’라고 여기는 것으로서 분명히 비지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지만 상담자는 더 나아가 내담자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 또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내담자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를 영적으로 통찰하고, 문제에 빠져 있는 자신을 각성케 함으로써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를 소유하게 하는 데 상담의 목적을 두었다. Ellis

는 이러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논박을 통해서 바꾸고자 했지만, 예수는 내담자에 대한 사랑이 담긴 교훈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와서 동생과 함께 앉으라고 하거나 어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주의깊게 듣고만 있지도 않았다. 단지 내담자가 중요하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되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의 교훈을 통해 내담자가 각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내담자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내담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준다.

2. 외로움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 실망, 고립감, 안절부절하는 마음, 불안 또 누군가 자신을 원하고 필요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수반할 수 있는 내적인 공허감을 의미한다(Collins, 1984). 오늘날 효율성과 편의성이 강조되고, 급격한 도시화, 마스크가 발달할 수록 상호간의 만족스런 관계를 발전시킬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고립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그들이 갖는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듯하다.

외로움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격려하고 용서하고 돌봐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Collins, 1984).

다음의 외로움과 관련된 3개의 사례를 살펴볼 때, 상담자 예수 역시, 질병으로 인해 소외된 문둥병자에게, 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삭개오에게, 그리고 죄와 이방인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마리아여인에게 먼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응력을 신장시키려고 하였다.

1) 문둥병자 (마태복음8:2-4, 마가복음1:40-45, 누가복음5:12-16)

내담자 :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상담자 :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버림받음, 거부, 미움, 분노, 조롱, 학대의 대상으로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외침으로 다른 사람이 근접치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자기증오와 열등의식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한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강한 동기는 상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도 물론 내담자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지만 낮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로 상담자를 먼저 찾을 수 있었으

며 또한 상담자에 대한 신뢰도 대단히 강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으로 상담언어로는 '공감한다'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내담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하며 수용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육체뿐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까지 치유하기를 원했다. 공감을 통하여 내담자의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적응하는 인간으로의 성숙을 돕는 데 역점을 두었다.

상담에서 skinship은 내담자로 하여금 겪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치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kinship은 내담자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내담자의 육체적 질병은 물론 그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삭개오 (누가복음19:1-10)



내담자 : (상담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감)

상담자 : (우리러 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담자 :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함)

주변인물 : (수군거리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내담자 :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상담자 :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상담은 도시 생활 속에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구가 된 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대표적인 상담 중의 하나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는 지탄의 대상이었다. 여리고 도성에서 상담자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는 죄의식에 눌려 마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유한 세리장으로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과 종교 생활권과 문화 유산으로부터 고립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기도 작아서 상당한 열등감과 외로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자기와 같이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며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어쩌면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를 용납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 속에 비쳐 들기 시작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작은 키에 대한 하나의 보상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내담자는 사람들과 서로 대면하여 상종하는 관계를 회피한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부터 거절을 당함으로 난처한 입장에 부딪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는 상담자를 만나야 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형태의 본능적인 충동이었던지 안전기제든지 간에 변화를 향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이 암시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외적인 모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담자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는 말로 내담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내담자가 세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충격적인 순간이다. 또한 상담자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불신의 벽을 넘어서 확신있는 태도로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상담자의 관심은 내담자의 불안, 소외감, 외로움에 있었고, 내담자를 사랑과 용납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내담자를 신뢰해주는 넓은 아량과 친절을 베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상담자가 자기에 대한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을 신뢰해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 그리하여 뿔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따른 행동을 보여 주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 부분은 rapport형성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진 부분으로, 상담의 효과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Ellis가 강조했듯이, Rapport형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형성됨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를 의지하고 그의 깊고 영속된 사랑이 내담자의 마음 속에 일어남으로써 회개와 신뢰의 단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생으로 자기 통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사랑의 경험을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랑은 내담자의 가능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염대천, 1985).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타인에게 완전히 수용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줌으로

써 내담자의 자기각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자기탐색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 수용하고, 한 인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Rogers가 강조한 상담자의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적 태도가 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상담을 종결하면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 줌으로써 종교적·문화적 유산 속에 들어가 적용하는 인간으로의 성숙을 도왔다.

3)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4:1-42)

상담자 : 물을 좀 달라

내담자 :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상담자 :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담자 : 주여 물 길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상담자 :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담자 :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상담자 :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내담자 :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상담자 :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내담자 :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상담자 :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담자 :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상담자 :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담자 :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굴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도함)

예수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르렀다. 앗수르에 의한 사마리아 함락 이래(B.C. 722년, 왕하 17:6) 유대와 사마리아 두 지방 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반목이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유대인들은 통상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였으나, 예수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러, 그것도 부정한 과거를 지닌 한 여인에게 접근하였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다 물을 길어 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던 것이다.

내담자는 사람들과의 단절된 생활로 인하여 인간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기에 상담 초기 장면에서 내담자의 반감은 강하게 나타난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말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민족적 감정과 멸시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담자의 끈질긴 상담 접근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내담자는 상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노출하기를 꺼려하며 핵심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종적·사회적·종교적 장벽을 깨고 먼저 내담자에게 접근하여 “물을 좀 달라”라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담 초기에 나타나는 내담자의 적대감과 방어적인 태도에 대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호기심을 일으킨다.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보다 잘 적응하고, 조화롭고 의미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상담의 목적으로 삼았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적대감정을 상담장면에서 이용하여 내담자의 호기심을 유발·상담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생수의 근원자 되심을 갑자기 말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고 궁금증을 갖게 하여 내담자가 저절로 상담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로 하여

금 문제를 주어 생각하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상담을 진지하게 상담자의 입장에서 끌고 갈 수 있게 한다.

또한 상담자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상담자의 말에 대한 내담자의 조소적인 태도에 상담자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함으로써 상담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말은 경우에 어울리지 않는 말 같으나 조롱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 되고 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었던 것이다. 내담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상담자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내담자의 말을 인정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내담자의 아픈 가슴을 정통으로 찢어 죄에 대해 직면시키고 있는 것이다.

3. 不安



불안은 조절될 수 없는 미래를 관망하여, 실패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야기될 가능성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미래의 일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자기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것은 사건이나 상황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Bucanan, 1995).

그러나 불안은 진리를 외면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다. 진리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피조성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다(Bucanan, 1995). 우리가 불안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에서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깊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은 육체적인 삶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불안을 겪고 있다. 이것은 Freud에 의한 불안의 형태 중 실제적인 불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담자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을 분명하게 인지한 것이다. 갈릴리 여인은 죄나 수치 속에 파묻힐 때 나타나는 도덕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회당장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질병과 귀신들림에 대해 불안한 경우이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를 제외한 다른 세 내담자들이 겪는 불안은 외부와의 고립과 낮은 자존감 등이 복합된 데서 비롯되어진다.

1) 혈루병자 (마태복음9:20-22, 마가복음5:25-34, 누가복음8:43-48)

내담자 : (상담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여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상담자의 옷에 손을 댐)

상담자 :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댐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리로다

깨자(베드로) :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상담자 :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 보며) 내게 손을 댐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이로다

내담자 :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함)

상담자 :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방금 예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건너편 지방으로 갔는데 그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예수가 야이로와 함께 가는 도중에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예수를 에워싸고 밀게 되었다. 이 때 12년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다.

내담자는 계속 하혈을 하여 부정하게 여김을 받고 있었는데 오랜 병치레로 인해 육체적·경제적으로 몹시 곤란했을 뿐 아니라 소외감, 분노, 거부, 조롱, 절망 등으로 감정적인 상처 또한 상당히 깊었다. 내담자는 단지 상담자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기대감과 신뢰가 대단히 강했고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담자는 처음부터 계속 침묵을 유지하며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담자가 자신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역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 사회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상처가 매우 깊었음을 엿볼 수 있다.

상담자는 위기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내담자(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다급한 순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불안에 쌓여있는 내담자를 찾았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담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내

담자의 믿음을 알아볼 여유를 갖고 있었다. 그 순간에 무리들의 외침보다 더 조용한, 그러나 그들의 욕구보다 더 깊은 침묵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지만 상담자는 내담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한 관심을 쏟았고 내담자의 행동을 그대로 수용해 주었으며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인적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내담자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질고에서 오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시키고 소외감과 경제적 압박, 의원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불치병으로 말미암은 낙담과 절망, 정신적인 불안을 치유하고자 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침묵을 경청함으로써 내담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했다. 하지만, 먼저 상담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담자에게 방금 일어난 일들을 진술하게 하였다. 즉 상담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담자가 직접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자 앞에 앉으려 모든 정황을 말할 때 상담자는 “평안히 가라”는 평화와 칭찬을 주어 그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안을 치유했다.

2) 갈릴리여인 (누가복음7:36-50)

내담자(여인) : (향유가 든 욕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결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내담자(바리새인) :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상담자 :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내담자(시몬) : 말씀하소서

상담자 : 빛 주는 사람에게 빛을 진 자가 돌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값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랑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담자(시몬) : 제 생각에는 많이 랑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상담자 : 네 판단이 옳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가 한 바리새인(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들어가 앉으셨을 때 죄많은 여인(창녀)이 예수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온다.

내담자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비난받음으로 인해 불안하고 억압된 상태이다. 이 상담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담자가 상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통절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고통을 치유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잔치 석상에 상담자를 찾아 올 수 있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향유를 '낭비'하는 것과 자신을 대중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을 묵인하면서, 비천한 그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출 때, 그것을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담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상담자는 내담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내담자가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꺼이 수용해줌으로써 내담자에게 안전을 제공해 준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개입을 극복하고 상담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전히 치유해 주는 것을 상담목표로 하고 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이다.

상담자는 주위의 비유를 통하여 부정적인 편견에 대해 직면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담자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내담자를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 주었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내담자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이다.

3) 회당장 야이로 (마태복음9:18-26, 마가복음5:21-43, 누가복음8:40

-56)

내담자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
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가는 도중 혈투증 여인과 상담)

내담자 :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회당장)을 더 괴롭
게 하나이까?

상담자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헌화하며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
었음)

상담자 :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
니라 잔다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며 모두 크게 놀라고 놀람)

상담자 :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한 사람으로서 회당
의 올바른 운영과 경건한 예배의 집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회당장은 직업적인 교사가 아니라 회중을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로 회당의 재정과 관리를 도맡아 운영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단자요, 죄인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담자에
게 몸소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딸과의 분리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상담자는 다급해 하는 내담자와 같이 동요되지 않고 침착성을 유지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담자의 심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로 내담자를 안정시키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강조하
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사회적·문화적으로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의 성

숙을 상담의 목표로 삼았다.

이 사례는 암시요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의 믿음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제3자의 믿음이다. 환자의 정신적 협력 없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고 있다(한태자, 1989). 또한 내담자의 주변인물의 심리적 태도와 협조가 내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담자는 부모와 가까운 제자 몇 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어 보낸 것이다.

4)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15:21-28, 마가복음7:24-30)

내담자 :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
신들렸나이다

상담자 : (침묵)

제자들 :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상담자 :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담자 : 주여 저를 도우소서

상담자 :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담자 :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
기를 먹나이다

상담자 :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돌아가라 귀
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은 의식적 불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으므로 통상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회피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로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역시 이방인이었으

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로부 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담자는 딸의 죽음에 대해 더욱 불안 하고 괴로웠을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을 무시하고 상담자에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 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도움 요청에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절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열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에 대해 보다 더 강한 치유의 열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여자”라는 단어는 당시 여인에 대한 존칭어로 쓰였고, 이 내담자를 이방인으로서가 아 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인간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의 존경심을 보여 준다.

내담자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도 록 도움으로써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를 알았다. 이렇게 경청은 문제의 핵심을 읽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상담자는 사람들 앞에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의 말로써 내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

4.挫折

좌절감은 곧 아무런 희망도 꿈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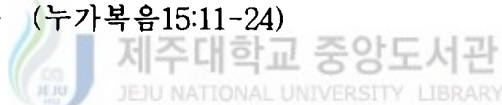
인류의 창조 이래 계속되어 온 좌절감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다가올 일들

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승진 실패에서, 외모에서, 그리고 깊은 죄의식에서 등등 깊은 좌절감에 시달린다. 인간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가치기준에 자신을 애써 맞추려 안간힘을 있지만, 당연히 이에 따른 실의와 좌절감은 인간으로선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만다(Underwood, 1995).

성경은 인간의 좌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마태복음 5:12).

여기서 살펴볼 4가지 사례에서 예수는 세상에서의 실패(탕자)와 자신에 대한 비판(베드로), 죄로 인해서(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형제의 죽음으로 인해(마리아와 마르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내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함으로써 이러한 좌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1)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15:11-24)



내담자 :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상담자 : (아직 상거가 먼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내담자 :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상담자 :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밤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 함)

이 사례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한 비유이다.

가출한 내담자는 세상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제 처절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상담자를 찾는다. 상담자는 자기를 용납해 줄 것이라고 신뢰했던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누우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상담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된다”라고 하지 않고, 내담자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 결국 내담자가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책망하거나 무시함이 없이 멀리서부터 내담자를 알아보고 반가이 뛰어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리고 사회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의 표현은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내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자아상과 존재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데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는 순간 skinship을 통하여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정해 주었다. 또한 내담자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담자가 안정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마태복음26:31~35, 요한복음18:15~27, 21:15~17)

장면1(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상담자 :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담자 :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때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상담자 :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담자 :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면2(날이 밝아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떨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풀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비 자 :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 :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사람 : 너도 그 당이라

베드로 :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쯤 있다가)

또한사람 :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 :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때 바로 닭이 운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장면3(갈릴리 디베라 바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등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잡고 날이 새어갈 때에)

상담자 :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 : 없나이다

상담자 :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어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상담자 :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 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상담자 :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은 후에)

상담자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담자 :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상담자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담자 :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상담자 :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담자 :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상담자 :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

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치 아니하
는 곳으로 예러가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가 부활한 후, 자신의 부활을 재삼 입증하기 위해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내담자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있게 죽는 곳에도 함께 가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상담자를 무참하게 배반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과거의 어부상태로 돌아간 상태였다.

상담자는 뗏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떨어진 내담자에게 접근하였다. 내담자와의 친밀한 rapport형성을 위하여 상담자는 손수 조반을 차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로 내담자를 향한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을 더 의미있게 계획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관계는 내담자 자신 간의 관계이며, 상담자와의 관계인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처받은 사건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이라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신념을 평가하도록 재조명하고,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시킴으로써 내담자의 기억 속에서 상담자를 부인했던 사실을 치유하셨다. 내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말 속에 담긴 자기 의식 내용을 분명히 자각하도록 하여 자아통찰의 기회로 삼도록 하였다. 이 기법은 게슈탈트상담의 “과장놀이”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상담장면3) 갈릴리디베라 해변의 숯불장면을 내

담자가 상담자를 부인하던 당시(상담장면1)의 숯불 장면과 일치시킴으로써, 그리고 세 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세 번의 질문을 던져 세 번 확인을 시켜 줌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그로 인한 절망감에서 완전히 회복시켰던 것이다.

3) 38년된 병자의 질병치료 (요한복음5:1-18)

상담자 : (내담자의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압) 내가 낮고자 하느냐

내담자 :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상담자 :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담자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말을 듣고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동안 똑같은 마비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담자의 무력감은 절망감으로 변했다. 게다가 치유에 대한 욕망으로 못에 먼저 들어가길 원했지만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그 절망은 아주 극에 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자포자기만이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직도 낮고자 하는 욕망은 남아 있었으며 상담자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내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해준다. 병이 오래 그 모습이 초라했을 것임에도 상담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현실의 문제를 통하여 육신적인 치료와 동시에 사회와 인생에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는 데 상담의 목표를 두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상담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변화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원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했다.

3)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8:1-11)

내담자 :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상담자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내담자 : 주여 없나이다

상담자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말라

이 상황은 예수를 책잡을 기회만 엿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처벌 방법을 묻는 장면이다. 만일 그 여인을 무죄하다 하면 율법 파기자요 음행 장려자로 비난하려고 했고, 돌로 쳐죽이라 하면 유대인에게는 사형 선고의 권리가 없었으므로 로마 정부와 충돌함은 물론 사랑과 자비를 부르짖었던 예수의 가르침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노리는 대적들의 음모였다.

간음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불잡힌 내담자는 이제 무리들이 던지는

들에 쳐 죽을 일만 남은 자포자기의 상태였다.

상담자를 궁지에 몰아넣어 책잡을 좋은 기회로 삼은 무리들 앞에서 상담자는 이제 막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침착성을 유지한다. 상담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자는 항상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내담자의 어떤 반박에도 상담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정죄하는 무리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였다. 무리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통해 누구나 갖고 있는 죄에 직면시킴으로써 그들이 이제 막 던지려고 한 돌들이 그들 자신에게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또한 이 기법은 Frankle의 역설적 지시법(이형득, 1992)과 상통하는 것으로 증상행동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오던 증상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기법이다.

내담자에 대하여는 무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하였다. 상담자는 그녀에게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상담자는 두가지 면에 상담의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내담자를 고소하는 종교계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과 비참한 현실에 당면해 있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통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 내담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보지 않고 먼저 한 인격으로 수용해주고 있다. 죽음에 직면하여 자신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먼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내담자의 닫힌 마음 문을 열게 했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통찰하고 자신의 부도덕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상담 장면에서 저항, 혼란, 탐색 등의 이유로 내담자 쪽에서 먼저 침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장면은 상담 도중 상담자가 먼저 침묵을 하는 예이다. Narramore(1984)는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침묵의 시간,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같이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시간이다. 이 침묵의 시간은 내담자가 통찰력을 얻고, 상담자가 자기의 최선의 사명을 다하는 황금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위를 너그럽게 보아 준 것은 아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각성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회개의 행동변화·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담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Adler는 심리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도덕적 판단 즉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곧 내담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공감의 침묵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5) 나사로의 죽음 (요한복음11:1-44)

내담자(마르다) :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
 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
 이다

상담자 :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담자(마르다) :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상담자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
 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담자(마르다) :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내담자(마리아) :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
겠나이다

상담자 :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내담자(마리아) : 와서 보옵소서
(무덤에 가서)

상담자 : 돌을 옮겨 놓으라

내담자(마르다) :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
이다

상담자 :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
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아버지여 내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
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동인 채로 나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르다와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가정으로 간다. 이 가정은 예수
께서 특히 사랑하셨던 가정으로,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홀이었다.

상담자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상담자를 원망하고
있음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내담자의 진심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좌절한 상태에서 온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내담자는 아직도 상담자를 신뢰하고 있으며 상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내담자가 마음껏 내면의 감정을 쏟을 수 있도록 주의깊게 경청하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내담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정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는 냉정을 유지하며 상담의 결과에 대한 확신있는 모습을 내담자에게 보여준다.

내담자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읽고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답변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내담자를 위로의 말로 지탱해주고, 상담 결과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해준다.

이상과 같이 예수의 상담사례를 살펴본 결과, 그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의 상담은 내담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는 공학적 방법이나 공식, 계획으로 성립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공감대에서 형성된다. 그는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먼저 신뢰해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으며, 내담자 자신이 통찰을 통해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내담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문제유형에 따라 상담목표도 달리 하였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교정해 주고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외로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주로 관계회복, 적응력 신장에, 불안의 문제에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적응력 신장과 잠재력 촉진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자아존중

감을 증진시켜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주로 권면과 교훈을 많이 사용하였고, 외로움, 불안, 좌절을 겪는 내담자들에게는 주로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의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IV. 예수의 相談原理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상담자(인도자)로 표현하였고(시편73:24), 이사야 9:6에서는 성자 예수가 모사(Wonderful counselor)가 될 것을 예언하였으며,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another counselor)'라고 칭하였다. '파라클레이토스'(paraklētos)는 '파라'(para) 즉 '옆으로'라는 뜻과 '칼레오'(kaleō) 즉 '부른다'는 뜻의 두 단어가 복합된 것으로 상담자 혹은 위로자는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Mike & Doug, 1995). 이와 같은 점에서 상담자 예수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항상 있어줌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 상담자 예수의 인간관, 상담형태, 상담목표, 상담기법 및 상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人間觀

상담자가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과, 인간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상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인간이해의 방법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생리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담의 대상인 인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통하여 예수는 다음과 같이 인

간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창세기 1:27)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간 이해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전영복, 1994).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자, 혈루증 여인 등등 특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며 따라서 인간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한 데서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2)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Freud는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로 보았고, Rogers는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반면에 예수는 인간을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인생에서 맺게 되는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올바른 자아인식과 자기통찰을 이루어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숙한 삶이란 소망이 있는 삶을 말한다.

상담자 예수는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불안해 하던 갈릴리여인에게 우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회복을 도와 주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빠진 탕자 그리고 간음하다가 무리들에게 잡혀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3) 인간은 존중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목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서 존경이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수는 비록 문제가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관과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지라도, 내담자 자체를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고 수용해 주었다.

4) 인간은 심리적 존재이다.

젊은 부자관원과의 상담장면에서 보면 예수는 인간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내면세계를 중시하고 있다. 인간은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는 겉으로 표현된 청년의 질문은 그 내면 속에 있는 동기의 무의식적인 반사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내담자의 질문은 그 무엇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욕구불만의 표현이라는 것을 파악했던 것이다.

5) 인간은 고통 당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죄인이며,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존재이다. 예수의 상담의 핵심은 바로 이 죄로 인한 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가복음 2:17)라고 하고 있다.

6)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다.

예수는 인간을 행동하는 존재로 보았다. 예수의 상담 사례에서 ‘~하라’하는 권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남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삭개오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의 상담에서 볼 수 있

듯이 예수는 내담자에게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 相談形態

예수의 상담 형태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수는 내담자에 따라서 여러 접근 방법 중의 하나를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내담자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의 상담을 혼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Clinebell(1983)은 상담의 형태를 지원적 상담, 교육적 상담, 영적 상담, 위기상담 등으로 분류했다. 문제영역별로 예수는 주로 어떤 상담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linebell에 의한 분류를 참고로 <표IV-1> 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표IV-1> 상담의 형태

상담형태	문제영역	사례수	비율(%)
지원적 상담	소외·외로움, 불안, 좌절	9회	56.2
교육적 상담	스트레스	4회	25
영적 상담	불안	2회	12.5
위기 상담	좌절	1회	6.3
합 계		16회	100

<표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는 지원적 상담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56.2%). 이것은 내담자들이 소외·외로움, 불안 그리고 좌절의 문제로 상담자를 많이 찾았음을 볼 수 있다. 인생 문제의 와중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죽음이나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자들 그리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감정적인 지원을 베풀어 줌으로 내담자가 “힘과 옳은 관점을 얻어 인생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자신의 인격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 주었다.

삶의 여러 가지 갈등에 놓인 내담자들에게는 주로 그들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교정시키기 위해 주로 교육적인 상담을 하였고(25%), 회당장 아이로와 같이 다급한 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는 위기 상담을 취했다(6.3%). 또한 혈루증 여인의 경우,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상담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길 원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상담자의 지탱과 수용, 사랑이 필요했지만, 상담자는 이 내담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영적으로 접근해 나갔다(12.5%).

3. 相談目標

성경은 육체적·정신적인 병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성경에서의 구원의 개념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두 관계가 있으므로 전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상담은 전인적인 상담인 것이다.

앞에서 본 예수의 상담 사례에서 상담의 목적을 분류해 보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문제영역별로 본 상담목표

문제영역	상담사례	상담목표
스트레스	“누가 큰 자인가”	인간관계개선, 비합리적 사고 교정
	젊은 부자관원	비합리적 사고 교정
	높은 자리 차지	비합리적 사고 교정, 인간관계개선
	마리아와 마르다	인간관계개선, 자기각성
소외외로움	문둥병자	자기존중감 증진, 적응력 신장
	삭개오	관계회복, 잠재력촉진, 가치관변화
	사마리아여인	관계회복, 적응력신장, 행동변화
불안	혈루병자	적응력신장
	갈릴리여인	관계회복, 적응력 신장
	회당장 아이로	적응력신장
	수로보니게 여인	잠재력촉진, 적응력 신장
좌절	돌아온 탕자	관계회복, 자아존중감 증진
	베드로	관계회복
	38년된 병자	적응력신장, 자아존중감 증진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각성, 관계회복, 행동변화
	나사로의 죽음	믿음 신장, 관계개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의 상담 목적은 주로 관계회복 및 개선, 적응력 신장, 잠재력 촉진, 행동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잠재력을 인식·촉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담자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사회에 더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의 성숙을 돕는 것이다. 즉, 일반상담에서는 상담의 목표를 억압된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나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에 두는 반면에 예수의 상담 목표는 죄자체로부터의 해방 즉, 용서와 죄사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김봉환, 1995). 따라서 상담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내담

자로 하여금 그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Bucanan, 1988).

4. 相談技法

예수는 상황과 내담자의 특성과 또 구체적인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한 상담 기법을 사용하였다. 때로 그는 주의깊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명백한 지시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명백하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예수는 격려하고 지지하였으나 역시 대항도 하고 도전도 하였다. 그는 죄지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였으나 회개와 순종과 행동도 역시 요구하였다.

(1) 재조명

예수는 종종 내적 치유에서 상처받은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권세를 행하였다. 재조명이란 그 사건을 다른 관점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Mike & Doug, 1995). 예수가 부활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행한 것과 같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질문한 것은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 번이나 확인시켜 줌으로 그가 부인한 것을 새로운 빛 속에 드러내 준 것이다. 재조명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함을 종결짓고,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부인했던 사실을 치유하며, 그 사건의 영향력을 공적으로 무마시켰던 것이다.

(2) 비유

예수의 상담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비유”의 사용이다. 상담의 거의 대부분이 비유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비유의 재료들을 일상생활에서 끌어내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 및 자기를 구성하는 감정, 행동, 경험, 미해결된 과제에 대한 자각을 촉진시켰으며,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도록 했다.

(3) 권면

예수는 때로 권면을 통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를 각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부자청년의 경우,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권면을 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탐욕적이고 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데서 온 것임을 각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직면

질문, 논쟁 또는 토의 중 내담자의 모순성 특히 현실적 책임과 관련된 모순성이 보이면 이에 대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것에 대해 직면시킬 수 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고소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한복음 8:7)라는 말을 통해 그들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임에 대해 직면시키고 있다.

(5) 만져주기(skinship)

접촉은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친밀함을 주는 기법 중의 하나로, 예



수는 이러한 skinship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특히 육체의 질병을 입은 내담자인 문둥병자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6) Modeling

모범은 본보기를 따름으로써 새로운 행동, 신념, 가치관 및 태도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천국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고 어린이 안에 예시되어 있는 겸손과 순수함, 소박성 등을 제시하여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고자 했다. 예수는 교육이 필요한 제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모범을 많이 보여주었다.

(7) 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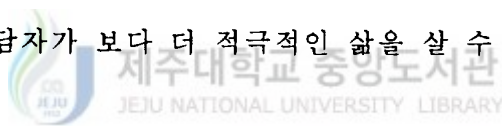
경청이란 내담자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경청은 숨겨진 감정에 더욱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담자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내담자를 진정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Bucanan, 1988). 예수의 경청은 '인식력(perception)', 또는 '지식의 말씀(a word of knowledge)'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예수의 경청 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죄와 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경청하였고, 또한 경청하는 가운데서 믿음도 역시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다루어진 사례 중에는 혈루증 여인, 갈릴리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두 자매와의 상담 등이 경청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혈루증 여인과의 상담에서 그는 내담자의 말없는 행동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Rogers가 강조하듯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도 '제3의 귀'를 가져야 함을 말해준다.

(8) 질문

예수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를 대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적당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당한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스스로 듣게 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베드로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대답을 내담자 자신이 직접 들음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예수는 칭찬이나 위로·격려의 말을 통해 내담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담자가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5. 相談者の 資質

일반상담에서도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은 상담자의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예수의 상담사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의 무조건적인 받아들임과 공감은 상담의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Rogers는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분

야에 있어서 민감해야 할 것이 기초적인 자질이라고 역설하면서 다음 4가지를 내세웠다(이금자, 1994).

첫째, 객관성-지나치지 않은 동정심, 순수한 이해성을 가진 신중한 태도, 도덕적 판단, 두려움, 충격 등에 깊은 이해성을 가지는 태도이다.

둘째,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상담자 자신의 인격 구조에 대한 정당한 이해로서 자신의 정서적 형태나 능력의 한계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담 장면을 객관적으로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심리학적 지식-상담자는 인간의 행동과 그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인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담은 방법이나 기술보다도 상담자의 자질이 더욱 중요하다.

예수의 조력 방식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그의 인격이었다. 자신의 가르침과 보호와 상담 속에서, 그는 조력자로서 효과적인 상담자의 모델이 되기에 적합한 특성과 태도와 가치 기준을 나타내었다.

예수의 상담자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인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을 볼 때 예수는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인간(내담자)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예수는 상담자로서 자신감이 있었다. 이것은 상담자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Freud는 상담자가 유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영혼의 무의식 층(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Collins, 1984). 자신에 대한 확실

한 이해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세로 확신있게 행동하였다(이상은, 1992).

셋째, 예수는 모든 내담자들에게 그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담자를 한 인격으로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그리고 때론 만져줌으로써 그의 존경을 표시하였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내담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열린 귀와 마음을 소유한 포용력이 있는 상담자였다.

넷째, 지혜로운 상담자였다. 주위의 부정적인 개입과 난처한 상황에서서도 그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

다섯째로, 사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상담자였다. 내담자의 직접적인 표현없이도 그는 내담자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치유 영역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분별력을 통해 내담자들을 성장시키며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용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을 용납하며, 내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살아갈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그의 상담에는 오래 참는 마음과 넓은 이해가 따랐다.

일곱째, 예수는 행동하는 상담자였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여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내담자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상담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모든 내담자에게 친절했으며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지닌 상담자였다. 또한 자기성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상담자로서 필요한 인내와 부지런한 성품을 지닌 능력있는 상담자였다.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본 연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고찰하여 예수의 상담원리를 제시하고, 기존의 일반상담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문제들 중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 좌절의 4가지 문제영역에 걸쳐 복음서에 나타난 16개의 사례를 발췌하여 문헌연구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수의 상담사례 중 복음서에 기록된 16개의 사례를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의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내담자의 삶과 인격 전체가 변화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의 상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이었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관심, 사랑이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일반상담과 관련하여 볼 때, 이 두 상담은 그 기본전제와 접근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고찰한 결과,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일반상담과 거

의 일치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상담기법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예수의 상담은 우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죄인으로 이해하였다는 점과 Narramore(1984)가 지적하였듯이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結 論

성경은 예수를 “counselor”라고 말한다(이사야9:6, 사무엘하15:12, 역대상27:32, 역대하27:32, 욥기12:17, 잠언15:22, 이사야1:26, 요한복음16:7, 15:26, 14:16, 14:26). 그는 다양한 계층·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들어주고, 그 해결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유일한 분이다.

사실, 예수의 생애 가운데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담 사례가 있었다(요한복음20:31). 이상복(1992)은 이 중에서 60건의 사례를, 김봉환(1995)은 40건의 사례를 고찰했지만, 본 연구자가 현대인의 가장 혼란 문제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16개의 사례를 발췌하여 연구·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예수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다룰 줄 아는 훌륭한 심리학자요, 상담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존중을 받도록 만들어진 가치있는 존재, 심리적 존재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고통은 그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소망으로 바

뀌게 된다. 따라서 예수의 상담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용서와 사랑을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예수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용납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다. 또한 상황이나 내담자의 특성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때로는 듣기만 하고 명백한 지시는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지시도 하였다. 내담자를 격려하고 지지하기도 했지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가 사용한 상담기법에는 재조명, 비유, 권면, 직면, Skinship, Modeling, 경청, 질문 등이 있다.

또한 기독교상담에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정신분석상담, 인간중심상담, 합리적·정서적 상담과 행동주의상담을 앞서 고찰하였지만, 예수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외에도 게슈탈트상담, Frankle의 실존주의 상담, Adler의 개인심리학적 상담 등 다양한 일반상담이론이 예수의 상담원리와 연관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상담이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전인적인 인간으로의 성숙을 돕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확실한 이해가 요구된다.

상담자 예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 즉 영혼의 치유에 상담의 초점을 둬으로써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었고, 그의 상담이 대부분 비형식적 단기 상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놓은 능력있는 상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또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의 상담의 효과와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 방법을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담자 예수와 완전하게 일치되는 모습을 갖추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가 비기독교인일 경우, 이러한 예수의 상담원리를 기꺼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비기독교인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도 상담자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는 예수의 상담사례를 통해서 예수의 상담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으므로, 각각의 상담사례에 대한 일반상담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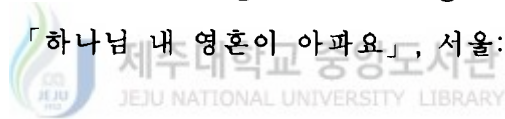


< 參考文獻 >

- 김병련(1995). 성경은 성경이다, 서울:도서출판소망사.
- 김봉환(1995).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 분석, 경남대 대학원.
- 김준출(1991). 교회상담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관동대 교육대학원
- 김충기(1993),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교육과학사.
- 김충기·김현옥(1991). 상담과 심리치료의 원리와 실제, 서울:성원사.
- 박국배(1989). 상담자 예수의 상담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 박영선(1996). 하나님의 열심, 서울:새순출판사.
- 서근석(1995). 전인치유로서의 임상목회, 고신대 신학대학원.
- 염대천(1985).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적 고찰, 부산대 대학원.
- 이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학지사.
- 이금자(1994). 목회와 상담, 서울:춘원문화사.
- 이상은(1992).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사례의 분석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 이장호(1986). 상담심리학입문,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정희(1992). 상담자 예수, 서울:도서출판그린.
- 이형득 외(1993).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형설출판사.
- 이형득 편저(1992). 상담이론, 서울:교육과학사.
- 장혁표·신경일(1993).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전영복(1994). 기독교 상담학, 서울:엘멘출판사.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5). 인지상담이론의 기초과정, 서울: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영진(1994). 상담의 성서적 접근방법, 순천향대 지역사회개발대학원.
- 한국교회찬송가위원회(1981). 라이프성경, 서울:기독지혜사.
- 한태자(1989). 현대의 상담이론과 예수님의 상담원리, 단국대 교육대학원.
- American Bible Society(1978). Good News Bible, New York:American Bible Society.
- Clyde M. Narramore(1984). The Psychology of Counseling, 양승달 역, 「상담심리학」, 서울:성암사.
- Duncan Buchanan(1988). The Counseling of Jesus, 천정옥 역,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하셨는가?」, 서울:아가페출판사.
- Gary R. Collins(1984). 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두란노서원.
- _____ (1984).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이혜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두란노서원.
- Howard Clinebell(1983). Growth Counseling, 「성장상담학」, 김선도 역, 서울:광림.
- H. Norman Wright(1996). Making Peace with Your Past,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송현복·백인숙 역, 서울:조이선교회출판부.
- Jay E. Adams(1987). Competent to Counseling, 「목회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총신대학출판부.
- Lawrence J. Crabb(1992). Understanding People, 「기독교 상담심리

- 학」, 오현미 역, 서울:나침반.
- _____ (1995). Basoe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개론」, 서울:아가페문화사.
- Lawrence J. Crabb & Dan B. Allender(1994.). Encouragement - The
Key of Caring, 「격려를 통한 상담」, 오현미·이용복
공역, 서울:나침반.
- Mike Flynn & Doug Gregg(1995). Inner Healing, 「내적치유와 영적
성숙」, 오정현 역,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Raymond L. Cramer(1981). The Psychology of Jesus and Mental
Health, 정동섭 역,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
서울:생명의 말씀사.
- Tom Marshall(1995). Right Relationships, 「깨어진 관계의 회복」,
채두병 역, 서울:예수전도단.
- Walter L. Underwood(1996). Being Human Being Hopeful, 공보길
역, 「하나님 내 영혼이 아파요」, 서울:엘멘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Counseling Principles of Jesus in Gospel
- Centered on Counseling Cases of Jesus -

Kang, Ock-Ryo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The problems of human are complex productions of inner, delicate, emotional and spiritual problems except physical ones. But these spiritual problems are hardly treated in common counseling. Therefore this study is purposed to suggest counseling principles of Jesus through analysis-study of counseling cases of Jesus and examine relations to common counseling for trying to find more effective counseling through trying to solve the basic problems of human.

This study chose and analyzed 16 cases of counseling cases of Jesus in Gospel over stress, loness, anxiety, frustration of modern social problems, tried suggesting human understanding, the patter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7.

of counseling, the purpose of counseling, the techniques of counseling and counselor's ability through technological approach on textual study.

According to summary on the counseling principle of Jesus, Jesus understood human as a creature like God, being related to Him. Therefore his counseling is purposed to help client have changes of the whole life and his own personality through recovering normal relationship to God and make maturer life with hope for the his future through recognizing the meaning of life. The point of Jesus's counseling is love. His unconditional admission, concern and love make client think of his own relationship to God.

Relating to common counseling, these two counselings have interest in common with human and the sufferings of human though they are different from the basic premise and approach.

But, Jesus' counseling is particular in the point of view - a creature like God and a sinner. Besides it focuses on the client's own relationship recovery to God.

This study provides the base of deeper understanding of human through suggesting the spiritual part in human which common counseling has not treated. In this point, this study is meaningful. Moreover, I think its effect will be in expectation if it is acceptable in counseling scene.